

효명세자[孝明世子]

순조 후반 대리청정(代理聽政)으로 정국과 정치 세력을 재편하고자 했 던 왕세자

1809년(순조 9) ~ 1830년(순조 30)



1 개요

1809년(순조 9)에 태어나서 1830년(순조 30)에 사망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휘는 영(暻),
[관련사료](#) [관련사료](#)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헌(敬軒), 학석(鶴石), 담여헌(淡如軒), 시호는 돈문헌
무인의효명(敦文顯武仁懿孝明), 능호는 수릉(綏陵), 묘호는 익종(翼宗)이다. 조선 제23대 순조(純
祖)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아들이며, 왕세자(王世子) 시절 3년 동안 대리청정(代理聽政)하다가
서거했다. 제24대 헌종(憲宗)의 아버지이고,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후에는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정조(正祖)가 안동 김씨 김조순을 순조의 스승이자 장인으로 삼아 훗날을 부탁하였고, 김조순은
순조를 보필하며 19세기 초반 '외척세도정치(外戚世道政治)'를 펼쳐 갔다. 하지만 안동 김씨 집안
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권세를 휘두른다는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효명세자

는 순조 후반 대리청정(代理聽政)으로 정국과 정치 세력을 재편하여 효명세자비인 풍양 조씨 집안을 중심으로 한 '세도정치(世道政治)'을 펼치고자 했다.

효명세자는 할아버지 정조처럼 '우현좌척(右賢左戚: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외척을 배척한다)'의 정국 운영을 모델로 삼아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배제되었던 우수한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정국과 정치 세력을 재편하고자 했다. 효명세자 측근 세력인 '익종사각신[翼宗四閣臣: 김로(金鎬), 서준보(徐俊輔), 서희순(徐憲淳), 김정집(金鼎集)]'과 홍기섭(洪起燮)·이인부(李寅溥)·조병현(趙秉鉉)·이지연(李止淵)·이유수(李惟秀) 등을 들 수 있다.

2 원자 정호와 왕세자 책봉

효명세자는 1809년(순조 9) 8월 9일에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태어났는데, 얼굴 모습이 제22대 왕 정조와 닮았다고 한다. 순조는 1811년(순조 11)에 영돈녕부사 김조순을 포함한 대신들에게 원자(元子)인 효명세자를 교육하고 보필할 인재들을 천거하라고 명했다. 이해에 순조는 잦은 병으로 조용히 치료하는 일이 많았고, 궁궐을 옮겨서 거처하기도 했기에 이듬해인 1812년(순조 12) 4살의 나이로 7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817년(순조 17) 9살에 효명세자는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한 뒤에 입학례(入學禮)를 행했다. 1819년(순조 19)에는 11살의 나이로 경희궁(慶熙宮)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冠禮)를 치르고, 풍양 조씨 조만영(趙萬永)의 딸과 가례(嘉禮)를 올렸다.

3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순조 후반 노론 외척 세력으로는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반남 박씨 박종경(朴宗慶)과 순조 비 순원왕후의 안동 김씨 김조순과 효명세자빈[훗날 신정왕후]의 풍양 조씨 조만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17년(순조 17)에 이르러서 풍양 조씨 조득영(趙得永)이 박종경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논척했다.

이후 1819년(순조 19)에 조득영 집안의 조만영 딸이 효명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효명세자와 가례를 올리고 왕세자빈으로 정해지면서, 풍양 조씨 세력도 외척으로 부상(浮上)했다. 이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양쪽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노론 '청론' 세력과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이 각각 이합집산하며 연합하는 정국과 정치 상황의 변화를 불러왔다.

1821년(순조 21)에 김조순의 요청으로 건릉(健陵)을 천봉(遷奉)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1822년(순조 22) 12월 26일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가 53세에 서거하며, 외척 내 반남 박씨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후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권세를 전횡하게 되는데, 일례로 1825년(순조 25) 12월 도목정사에서의 '서찰[=귀찰(貴札)] 위조 사건'을 들 수 있다. 청백리인 김전(金銓)의 봉사손(奉祀

孫) 김희수(金禧秀)가 이조판서 이석규(李錫奎)에게 김조순의 추천 서찰을 전했고, 김희수는 장릉 참봉(章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 김조순의 추천 서찰을 위조한 김희수를 잡아 가두었다가 유배 보냈고, 이조판서 이석규는 파직되었다가 이틀 만에 예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신임 이조판서에는 조만영이 임명되었다. 남인 세력 중 윤기(尹愔)는 이 사건을 자신의 문집에 남기며 '세상의 변고(變故)'라고 논평했다. [관련사료](#)

이처럼 안동 김씨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정조가 김조순을 순조의 스승이자 장인으로 삼아 훗날을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전횡이 심해지자, 순조는 풍양 조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통해서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배제했던 노론 '청론' 세력과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을 정계에 진출시키고자 했다.

1827년(순조 27) 2월 9일에 순조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명을 내렸다. [관련사료](#) 2월 18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왕세자가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국정을 처리하는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한편,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김조순은 신위(申緯) 등의 인물을 추천하고, [관련사료](#) 본인은 여주 현암으로 물러나 있었다.

대리청정 시기에 원손[元孫: 헌종(憲宗)]이 태어나고, 효명세자도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1828년(순조 28) 2월에 순조를 배행(陪行)하여 화성(華城) 행차를 하였고,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현릉원(顯隆園),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健陵)을 참배했다. 또한 효명세자는 순조의 40세 생일과 즉위 30주년을 경축하며 연향(宴享)을 올리고, 정재(呈才)·악기(樂器)·복식(服飾)·반차(班次) 등에 대한 도식을 포함한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를 만들기도 하였다.

대리청정 시기 정계에 진출한 노론 '청론' 세력과 소론, 남인 세력들은 주로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전횡을 비판했다. 일례로, 1829년(순조 29) 7월에 남인 부호군 심영석(沈英錫)이 안동 김씨 호조판서 김교근(金敎根)·김병조(金炳朝) 부자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탐낸 일에 대해 논척한 바 있다. [관련사료](#) 또한 8월에는 대사간 이인부(李寅溥)가 사류(士類)를 권장하고 청의(淸議)를 북돋우기를 요청하는 상서를 올리기도 했다. [관련사료](#)

11월에는 부호군 신의학(愼宜學)이 경신년(庚申年, 순조 즉위년[1800])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청론' 이서구(李書九)와 '벽파' 심환지(沈煥之)의 공과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서를 올렸다. [관련사료](#) 그는 1800년(정조 24) 5월 그믐날에 정조가 '오회연교(五晦筵敎)'를 통해 '벽파'와 '청론' 세력을 등용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이 속한 세력의 이해에 따라 각각 해석되고, 1801년(순조 1) '신유옥사'와 1806년(순조 6) '병인경화'로 왜곡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서구·심환지를 군자(君子)·양(陽)·선(善)으로, 김이재(金履載)·윤행임(尹行愐)을 소인(小人)·음(陰)·악(惡)으로 보았고, 윤행임을 '도깨비'라고까지 지적했다. 순조가 재위한 지 30여 년인데,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에 올라온 이인부·신의학 등의 발언은 조정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후 신의학은 추국 과정에서 연암 박지원(朴趾源)의 처남이자 지기(知己)였던 전주 이씨 이재성(李在誠)의 아들인 이정관(李正觀)과 안동 김씨 김이석(金履錫)의 아들 김학순(金學淳)이 관련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설령 효명세자가 이서구·심환지의 공과를 재론하고 싶더라도 신유옥사와 병인경화는 1801년(순조 1)과 1806년(순조 6)에 순조가 처분한 것으로, 당시 순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번복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신의학은 의리에 배치되고 국시(國是)를 번복시키려는 극악한 역적으로, 심환지와 같은 역적을 군자라고 한 흥역을 만들어 범상부도(犯上不道)한 죄로 처형되었다. 여러 신하들의 계속되는 추가 조사와 연좌, 토죄 요청에도 불구하고 효명세자는 정조의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정국 운용 방식과 같이 안동 김씨 세력인 김교근·김병조와 청론 세력인 신의학 등이 각각 관련된 양쪽 세력 모두를 처분함으로써 세도를 안정시키며, 세신(世臣)과 세가(世家)를 불안하지 않도록 진안(鎮安)한 후, 외척과 제 세력 내의 여러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조정(調停)하는 방식으로 정국을 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830년(순조 30) 4월 10일 이후로 효명세자에게 약간의 병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윤4월에 갑자기 각혈을 하고, [관련사료](#) 5월 6일에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22살의 나이로 서거했다. 김조순은 효명세자 만사를 작성하며, "1830년 9월에 장차 왕세손[헌종]으로 책봉하려고 하였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세자가 신선의 수레를 타고 떠나니, 아! 슬프도다"라고 적고, 또한 "구휼선 띄우니 북로가 소생하고 내탕고를 여니 남쪽 변방이 안정되었네 ... 덕을 형용함에 밝음[明]이 합당하고 이름을 찾노라니 효도[孝]가 가장 근거 있네"라며, 효명세자의 치적으로 북로에 구휼선을 보내고, 남쪽 지역에 내탕고를 열어 물자를 보내 안정시켰다고 기술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5월 12일에 시호를 효명(孝明), 묘호(墓號)를 연경(延慶), 묘호(廟號)를 문호(文祐)라고 했다.

4 효명세자 사후 정국의 동향과 추숭(追崇)·천장(遷葬)

효명세자 사후 효명세자 측근 세력은 곧바로 숙청되었다. 1830년(순조 30) 6월에 대사헌 권비응(權丕應)이 김조순이 작성한 「효명세자연경묘지문」의 "곤성전하[순원왕후]께서 세자의 말씀 가운데 '지난 일에 후회가 많고, 간사한 사람은 믿기 어렵다'라고 하셨다"라는 구절을 들고, [관련사료](#) 이어서 홍문관교리 윤석영(尹錫永)·정언 신윤록(申允祿) 등과 부사과 윤상도(尹尙度)가 효명세자 측근 세력에 대한 탄핵을 이어갔다. 그 대상은 '익종사각신'으로 불렸던 김로, 서준보, 서희순, 김정집 [관련사료](#) 과 홍기섭·이인부·조병현·이지연·이유수와 [관련사료](#) 소론 세력 호조판서 박종훈(朴宗薰)·전 유수 신위 [관련사료](#) ·어영대장 유상량(柳相亮) 등이었다. [관련사료](#)

순조 또한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윤상도는 추자도로 정배하고, 김로는 남해현에 안치하며, 이인부는 벼슬자리에서 내치고 제 고향으로 내쫓는 명을 내렸다. 이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외척 세력을 각각 중심으로 해서 형성한 윤상도와 김로·이인부 양쪽 세력 모두에게 형벌을 주는 처분이었다.

그러나 순조와 효명세자가 양쪽 외척과 제 세력 내의 여러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시켜 조제(調劑)하여 조정하고 세도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9월에 경주 김씨 김노경(金魯敬)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819년(순조 19)에 효명세자와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이 대례(大禮)를 올릴 즈음에 김노경이 흥측한 말로 저지하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생부인 김노경은 강진현 고금도에 위리안치 처분을 받았다.

효명세자 사후,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논척을 받아 순조의 처분을 받고 유배를 갔던 효명세자의 측근 세력들은 3년이 안되어 김조순이 사망한 후 순조에 의해 사면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1834년(순조 34) 순조가 죽고,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1840년(헌종 6)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제2차 윤상도 사건이 재론되기도 하였다.

1830년(순조 30) 8월 4일에 효명세자의 연경묘(延慶墓)는 경종(景宗)의 의릉(懿陵) 원편에 조성되었다. 동대문 밖 양주 천장산 유좌(酉坐)의 언덕이다. 1835년(헌종 1) 헌종은 효명세자의 시호를 추숭(追崇)하여 '돈문헌무인의효명대왕(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이라 하고, 묘호는 '익종', 신전(神殿)은 '효화(孝和)', 능호는 '수릉'이라고 했다.

그 뒤에 풍수가 좋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 1846년(헌종 12)에 경기도 양주군 용마산 기슭으로 천장하고, 그 후 1855년(철종 6)에 현재 위치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태조의 건원릉 옆으로 다시 천장하여 동구릉의 마지막 능이 되었다. 1899년(광무 3)에 문조익황제로 추존되었다. 부인 신정왕후(神貞王后)는 1890년(고종 27) 4월 17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서거하여 8월 30일 익종과 합장되었다. 1832년(순조 32) 10월에 순조의 하교(下敎)로 문집 초본(草本) 4책을 토대로 선사(繕寫)하여 『경헌집』(敬軒集) 8편 4권으로 완성했다.